

쓸쓸한 가을, 시사·인문학에 빠져봐~

‘오늘밤 김제동’ 등 신설 프로그램 다양
시민과의 소통·디지털 퀴즈쇼 등 인기
아날로그 감성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

가을을 맞아 방송사들의 개편이 이어지고, 또 꼭 개편이 아니라도 새로운 TV 프로그램을 내놓는 곳이 많다. 최근 등장한 새 프로그램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시사, 인문학, 복고라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

◇ 시사 프로그램 시대... ‘오늘밤 김제동’ 외
정권 교체 후 장기파업을 끝낸 KBS, MBC 등 공영방송들은 저마다 간판 시사 프로그램의 화력을 보강하고, 또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을 내놓는 데 여념이 없다. 시민 눈높이에 발맞추려는 다급함이다.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된 KBS 2TV ‘오늘밤 김제동’은 MC 김제동을 내세워 시사토크쇼 형태로 꾸밀 예정인데, 심야 뉴스를 대표하는 ‘뉴스라인’을 축소하면서까지 편성된 만큼 어느 정도 파급력 있는 콘텐츠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저널리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MBC TV 역시 원조 사회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을 비롯해 ‘스트레이트’ 등을 통해 사회 비판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MBC 표현에 따르면 ‘잃어버린 10년’ 만큼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한 뜨거운(또는 해묵은) 감자들을 다루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설정성님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PD수첩’은 이후에도 배우 고(故) 장지연 사건 등을 연이어 다루며 주목받는다.

MBC는 이밖에도 파일럿으로 선보인, 예능과 시사교양 중간쯤에 있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판결의 온도’, ‘할머니네 똥강아지’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를 정규 편성하고, 최근에는 기업 탐방기인 ‘구내식당’을 선보였다.

KBS 관계자는 11일 “시사 이슈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로 내 주변에서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 속에 바로 시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가장 좋은 포맷이 시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힐링에는 인문학이 제격... ‘알쓸신잡3’ 등
매일같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대사회,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힐링해주는 방법의 하나로 인문학이 주목받는다. 인문학 예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은 오는 21일 시즌3으로 찾아온다.

MC 유희열과 프로그램 마스코트와도 같은 작가 유시민, 시즌1에서 만난 소설가 김영하 외에 MIT 도시계획학 박사 김진애, 물리학자 김상욱이 합류해 지난 시즌들보다도 더 풍성한 ‘잡학’ 지식을 뽐낼 예

정이다.

제작진은 “고대 서양 문명 중심인 그리스 아테네, 르네상스 건축과 예술의 본고장 이탈리아 피렌체,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세계적인 환경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배경으로 생생한 수다 여행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해 더욱 기대를 안긴다.

tvN은 또 추석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어쩌다 행동과학연구소’를 선보인다.

‘인문학 실험예능쇼’를 모토로 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8명의 ‘플레이어’가 세 곳 실험실에서 다섯 가지 게임을 하며, 다른 방에서 행동과학과 인지심리학 전문가들이 그들의 행동을 분석한다. ‘스테디셀러’인 게임 예능에 인문학을 결합한 형태다.

이달 중순 MBC TV가 선보일 ‘토크 노마드’는 국내외 유명 드라마, 문학, 음악, 영화 등의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 떠나는 로드 토크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문학, 영화, 음악 등 문화적 지식의 베이스가 두터운 이동진 영화평론가, 정철 카피라이터 등이 각자 서로 다른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 토크쇼·퀴즈쇼·사람찾기 등 ‘복고’ 바람
마지막 키워드는 ‘복고’ 또는 ‘아날로그’다. 근래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원 게스트 토크쇼, 사람 찾기, 퀴즈쇼 등이 속속 부활하는 모양새이다.

가수 유희열이 진행을 맡아 첫 회 호평을 받은 KBS 2TV ‘대화의 희열’이 원 게스트 토크쇼 대표 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원 게스트 토크쇼 포맷을 되살리는 대신, 과거 프로그램들과 달리 정해진 대본이나 프롬프트 없이 사색 느낌으로 진행돼 게스트 이야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이 끌어낸다. 첫 회 게스트로 나온 김숙 역시 기존 프로그램들에서는 들려주지 않은 공백기 경험 등을 진솔하게 털어내 공감을 얻었다.

퀴즈쇼 역시 최근에 연달아 등장한다.

유재석의 tvN 진출작으로 화제를 모은 ‘유크이온 더 블럭’은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에게 퀴즈를 제안, 연속으로 맞으면 상금을 주는 내용으로 일찍 보면 ‘올드’한 포맷의 ‘공익성 예능’ 같지만, 유재석의 진행 능력과 시민의 사연이 결합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오는 21일부터 서경석이 진행할 KBS 2TV ‘퀴즈왕’은 라이브 TV 쇼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시대 새로운 형태의 퀴즈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KBS 2TV는 또 과거 인기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를 8년 만에 다시 내놓는다. ‘사람찾기’를 온라인으로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요즘, 사람을 찾는 과정은 즐기고 ‘사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방송가 한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풍성해졌다. 최근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양산되는 경향이 많아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래된 것이 더 참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힐링 라이브 즐겨요”

TV조선 ‘숲속 라이브’
휘성·정인 등 한자리에

TV조선은 새 음악 프로그램 ‘숲속 라이브’를 오는 16일 오후 7시 50분에 처음 방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숲속 라이브’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행, 음악, 그리고 추억과 감성을 테마로 ‘힐링’을 선물할 프로그램이라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40년 만에 공개된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음악 숲에서 촬영됐으며, 이곳에서 관객 마음을 치유해줄 라이브 음악 쇼가 펼쳐졌다.

4회에 걸쳐 방송될 ‘숲속 라이브’에는 가수 휘성, 정인, 변진섭, 알리, 하동균, 블랙비 태일, DJ DOC 레이블 등이 출연해 지금껏 보지 못한 색다른 라이브를 들려준다.

제작진은 “힐링 음악회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전곡을 어쿠스틱 편곡으로 진행했다. 자연과 어울리는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무대와 고품격 라이브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며 “관객과 뮤지션이 직접 소통, 교감할 다양한 토크 코너를 구성해 관객과 한층 더 가깝고 편안한 분위기의 음악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광주 MBC 뉴스 투데이 35 2018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다저스·신시내티 레즈>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오늘의 탐정(재)	25 시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트(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솜바꼭질(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날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오늘의 탐정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회사 가기 싫어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디큐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매운 돼지갈비찜과 참나물 통들깨 갈비찜)	17:30 꼬마버스 타요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멕시코 맛기행 - 3부 에니캣의 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인생은 축제다, 멕시코 3부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우리 가족 거리 출하기-부모성적표(재)	21:30 한국기행 <세상 끝 고원을 가다 3부 달콤 쌉싸름한 고원의 맛>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칼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2:45 극한직업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3:55 EBS 초대석
09:30 원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4:45 지식채널e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랄라 뽀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9월 12일 (음 8월 3일 丁未)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2일 (음 8월 3일 丁未)
<p>子 36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48년생 후회하지 않게 행동하라. 60년생 목욕히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72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84년생 자만한다면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61, 49</p>	<p>午 42년생 어떤까지 살피면 후에 판단할 일이다. 54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어렵다. 66년생 예리한 안목을 활용한다면 보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78년생 망실 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 하라. 90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0, 27</p>
<p>丑 37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49년생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61년생 내심에서 내키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느니라. 73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85년생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3, 51</p>	<p>未 43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 될 것이다. 55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판하지 않는다. 67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79년생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91년생 마지막 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85, 20</p>
<p>寅 38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50년생 필히 영광이 따르리라. 62년생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 74년생 명확한 기준으로 개념을 분리하라. 86년생 핑 대신 달아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5, 39</p>	<p>申 44년생 변영의 순풍과 함께하고 있다. 56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내부는 참으로 허술하다. 68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80년생 배가 된 노력이 경주돼야 승산이 있다. 92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11</p>
<p>卯 39년생 능히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51년생 팬층 많은 모양새이니라. 63년생 의도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보인다. 75년생 높은 산에 올라 간 격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87년생 망심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6, 53</p>	<p>酉 45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전혀 개의치 말라. 57년생 평 함께 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69년생 평 이함에서 탈피하여 변모를 시도해 보자. 8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라. 93년생 실망하여 허탈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2, 54</p>
<p>辰 40년생 말쑥한 소지가 있다면 아예 손대지 말라. 52년생 분말이 전도 되어서는 아니 되었다. 64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76년생 애쓰다면 원하는 성과가 도출 되리라. 88년생 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이득은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45, 34</p>	<p>戌 34년생 계기가 이뤄지지 않아서 종국적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 46년생 접점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라. 58년생 만회하기가 좋은 날이다. 70년생 궁극적으로는 황금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고 비유할만하다. 82년생 도중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9, 80</p>
<p>巳 41년생 근심 없이 편히 지내겠다. 53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65년생 누구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77년생 감당하기에는 벅차겠다. 89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41, 31</p>	<p>亥 35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다. 47년생 침착하게 대응 해나간다면 오히려 빠르리라. 59년생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질 것이다. 71년생 거주장소 리운 것은 차치하고 편하게 임하라. 83년생 장기적인 동력원이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33</p>